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www.gnpnews.net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사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를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전 세계 떠돌이 아이들 5000만 명 달해

유니세프, '이주 어린이 위기' 보고서

내전과 박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고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약 5000만 명에 달한다고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7일(현지시간) '떠난 이들: 난민·이주 어린이의 커지는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는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확실한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해 학대, 억류당할 위험에 놓여 있으며, 영양실조와 탈수 등의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은 피난길이 마쳐지고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외국인 혐오나 차별에 시달리며, 직접 공격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 지난해 독일에서만 난민 쉼터를 공격한 사건이 850건이나 발생했다.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는 아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7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보호자의 동행 없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2014년 수치의 3배다.

유니세프는 각국에 가족으로부터

터 떨어진 아동 난민에 대한 구급을 중단하고, 자국 내 외국인 혐오, 이민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저스틴 포사이스 유니세프 사무차장은 “현재 난민 위기의 부담이 나라별로 공평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이웃 국가나 빈국이 너무도 많은 짐을 지고 있다.”며 “세계가 난민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NPNEWS]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태복음 18:5)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마태복음 21:16)

기도 |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다음세대가 열방 곳곳에서 유리 걸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기회가 허락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루



- 아프리카 차드의 아이들

제공: 권한나

30대 위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띈다. 'A Day in The Life of...' '~의 생명 안에 있는 하루'라는 뜻이다. 누구의 생명 안에 있는 하루가 되어야 할까? 과연 누구의 생명 안에 있는 하루를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마치 '해답을 가르쳐 줄까요?'라고 질문하는 듯하다.

완성되지 않은 문장 뒤에 예수

(Jesus)라는 단어를 붙이니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루'가 된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는 우리를 종처럼 끌고 다녔던 사탄의 권세도 힘을 잃는다. 사망도 우리를 쏘지 못한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위험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더 이상 해할 수 없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나의 하루'라는 문장 앞에 '예

수의 생명 안에'란 말을 붙여보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나의 하루.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하루였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에베소서 1:3) [GNPNEWS]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9)

준비 되셨습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이같이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모았다. 겨자씨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준비 되셨습니까?

이 말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육상경기의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에, 혹은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기 전에 들리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수능을 치르기 전에는 초,중,고등학교의 12년이라는 아주 긴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도 결혼

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 결과 또한 황당하겠지요.

당신에게도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수의나 영정사진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정리 분배할 것인지 묻는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일이지 죽은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저는 '진정 당신 자신을 위한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 당신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당신 일생의 길이만큼 이미 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는 초청의 전갈도 보냈습니다. 천국에 가는 준비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한 그 예수님



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애써 준비해야 할 것은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 미리 준비해 주신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것은 그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준비 됐느냐?” [GNPNEWS]

INSIDE

02 뉴스 | 미국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은 선천적 특성 아니다”

03 기획 |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기획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을 드러낸 종교개혁

05 인터뷰 | 박바나바·심실라 선교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06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김용의 믿음의 사람아, 여지를 남기지 말라!

08 뷰즈인 아트 | 미켈란젤로의 <다윗> 믿음을 되살리는 '이스라엘의 등불'

아메리카

“동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은 선천적 특성 아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연구팀, ‘성(性)과 성별’ 보고서 발표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비이성애자(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와 같은 비이성애자가 특별한 성적지향성이나 성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로렌스 메이어 박사(정신의학)와 폴 맥휴 박사(정신의학 및 행동과학)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 ‘성과 성별: 생물학, 심리학, 사회과학적 조사 결과’를 과학기술 전문지 ‘뉴에틀란티스’ 2016년 가을호에 기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들이 가지는 ‘성적 이끌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 특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메이어 박사는 “성적 정체성은 유동적이며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은 성장하면서 변한다.”며 “유년시절의 성적 정체성이 성인이 되면서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비이성애자의 경우, 이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약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정적인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결과 고위험군에 속했으며, 자살위험률 역시 약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자살시도율이 일반인에 비해 약 5배 이상이며, 자살에 의한 사망자가 약 19배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 전문가는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동성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해서 동성애자가 됐다.”고 말했다. [GNPNEWS]

아메리카

니카라과, 대선 앞두고 선교사 입국 금지



▶ 선교사 입국 금지 규제에 반대하는 성도들의 시위 모습(출처:evangelicalfocus 캡처)

니카라과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대통령 선거가 11월 6일로 예정된 니카라과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현 대통령의 3선이 유력한 가운데,

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인권단체들의 입국은 물론 자국 상황을 외국으로 알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고 크리스천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니카라과는 현재 대선이 끝난 후 일정 시점까지는 선교사들이 입국 신청서 입국 목적과 예정된 활동 내용과 활동지역 등을 자세하게 적어 제출하고 입국 허가 여부를 기다리도록 했다.

지난 8월 말 니카라과 이민사무소는 두 명의 외국인 카톨릭 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들의 입국 목적이 대학원 과정의 신학교 건립이지만,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한편, 오르테가 정부는 현재 가장 강력한 야당인 전국민주연합의 대선 참여 자체를 봉쇄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GNPNEWS]

한국

아트리, 뮤지컬 요한계시록I 앵콜 공연



▶ 2015다시복음앞에 집회 당시, 공연예배로 초연된 요한계시록I 장면.

문화행동 아트리의 문화전도 프로젝트 공연 ‘뮤지컬 요한계시록I’이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청담동 설악아트홀(김공빌딩)에서

앵콜공연으로 진행된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묵상하며 재구성된 이 뮤지컬은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신부된 교회의 러브스토리라는 내용으로 꾸며진 작품이다.

평일은 오후 8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3시와 7시, 주일은 오후 4시에 공연이 진행된다. 예매 및 문의: www.gospelartree.com, ☎ 010-9432-4148, 010-5362-0316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8.21~9.1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 공합니다. <편집자>

미국의 학대받은 4살 여아 “내 이름은 멍청이”

미국의 한 가정에서 오랜 아동학대에 시달린 4세 여자아이가 경찰이 자신의 이름을 묻자 ‘멍청이’(idiot)라고 말했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이 아이는 발견 당시 눈과 온몸이 멍투성이였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까지 있었다.

하나님,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대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랑이 식어버린 이 세상을 봅니다. 주의 긍휼로 이들을 붙드소서.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소서.

인도 갠지스 강 홍수 수위 ‘사상 최고’...156명 숨져

우기를 맞은 인도의 갠지스 강에서 유독 심각한 범람이 발생해 사상 최고 홍수 수위가 관측돼 비하르 12개 지역에서 총 156명이 숨지고 2024가구가 수재를 입었다고 인도 재난관리부의 28일(현지시간) 발표를 인용해 BBC가 보도했다.

주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만 삶의 평안이 없는 인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고통으로 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호주 법원, 암환자 아이 치료보다 죽게 놔달라는 부모 요청 수용

호주 법원이 치료를 주장하는 병원 대신 암 환자인 여섯 살 아들을 그냥 죽게 놔두길 원하는 부모 손을 들어주었다고 1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했다. 판사는 수모세포종이라는 희귀 뇌암 환자인 아이에게 치료보다 고통 경감의 돌봄이 삶을 위한 최선이라고 판시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러시아 ‘선교활동 금지법’ 발효...첫 크리스천 지도자 ‘체포’

러시아 유대인 지역사회에서 설교하던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표 세르게이 주라빌료프가 러시아 당국이 반테러법을 발효한 후 처음으로 체포됐다고 모스크바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허용한 예배장소를 제외한 곳에서의 신앙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러시아의 반테러법을 없이하여 주소서.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모를 파하소서.

스리랑카, 말라리아 청정국 됐다...4년 가까이 발병 ‘0’

스리랑카가 4년 가까이 말라리아 발병 사례가 한 건도 없어 ‘말라리아 청정국’으로 선포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인용해 7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1999년 26만5000건의 말라리아 발병 건수를 기록했던 스리랑카는 2012년 10월 이후 0건이다. 스리랑카를 말라리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곳곳에서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영원한 도움이 되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6년 9월 3주~9월 4주

9월 3주(9.19~9.24)

- ▶ 경기 광주 / 동산의새교회 (김시환) 031-765-3927
- ▶ 경기 광주 / 문광교회 (최**) 010-3380-5781

9.19~20(09시~21시)

- ▶ 경기 용인 / 수지선한목자교회 (연현주) 031-265-0191

9.19~23(07시~23시)

- ▶ 강원 강릉 / 은강교회 (박**) 010-7439-7020

9.22~23(06시~18시)

- ▶ 전북 전주 / 전주사료교회 (진**) 010-2638-1440

9월 4주(9.26~10.1)

-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은선) 061-271-9981
-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희락) 031-750-1009

▶ 인천 계양 / 효성동교회 (조성환) 032-548-4056

9.29~9.30(07~19시)

- ▶ 전북 전주 / 시향교회 (정**) 010-8295-6689

기도참여 문의

기도24-365본부 느헤미야52팀 ☎ 070-4803-9026~7, 010-4192-4365 www.prayer24365.org

📖 기획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기획(1)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을 드러낸 종교개혁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다. 전 세계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리며 교회의 개혁을 외치며 부르짖고 있다. 이에 종교개혁 당시의 시대상황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종교개혁의 의미와 교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살펴본다. <편집자>

종교개혁은 교회의 십자가 복음 회복

종교개혁 전야

서양 중세사회의 도덕은 극도로 타락했다. 제도적으로는 혼전관계, 간통, 동성애, 소년애, 남색 등을 금지했으나, 사회 각층에서 이 같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성직자들과 수도사들 사이에 동성애가 빈번했다.

중세문학에 나타나는 귀족부인의 정부(情夫)는 언제나 사제로 등장하듯, 교회의 도덕적 타락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16세기 중용적 종교개혁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한 사제와 그가 목회하는 교회의 신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다.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의 행악이 중세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교황청 역시 탐욕으로 가득 차다. 교황은 양떼를 돌보기보다 황금을 모았고,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당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일에 몰두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기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교회의 본질보다는 예술과 사치를 즐겼다. 상인 로렌조 데 메디치의 아들인 레오 10세는 베드로대교회당을 완성하고자 자금 조달방법으로 면죄부를 판매했다.

이처럼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하자 양식 있는 신자들은 분노를 터뜨렸다. 교황과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은 점차 종말론적인 기대를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원했다. 또 한편, 경건한 성직자들은 신앙문제에 대한 자각을 갖기 시작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개혁운동

중세시대 교회개혁을 향한 갈망은 수세기에 걸쳐 나타났 다. 1150년대의 왈도파는 교황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단순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위클리프, 후스, 롤라즈, 타볼파, 후스파, 자롤라모 사보나롤라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개혁운동은 전통에 대한 성경의 우위를 천명하면서 진행됐다.

이러한 흐름은 경건에 대한 열망



▶ 예수와 교황(목판 풍자화, 독일, 1540년경). 가시관을 쓰고 나귀를 타신 가난한 예수와 삼중관을 쓰고 고가의 옷으로 치장한 백마 탄 교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당시의 경건운동은 종교성과 도덕행위에만 역점을 두면서 '교황교회'의 사상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나, 칭의와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며 믿음의 대상이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강조했던 후대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몸을 확대하며 참회에 몰입하는 고행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위클리프는 당시 교회제도가 성경적 기초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

며 교회와 수도원을 송두리째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클리프는 당시 성찬에서 물질이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회의 화체설은 미신을 조장하며 성육신을 부인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혁신앙은 하층민의 환영을 받았다. 개혁신앙은 초기에 학자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수용되다가 점차 가난하고 억압당하

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고, 십자가에서 나오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교황은 루터를 파문했고 1521년 보름스 의회에서 최후의 결전이 진행된다. 루터를 고발한 이들은 루터에게 이전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당일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변론을 미룬 루터는 다음날 이같이 담대하게 외쳤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저는 어떤 말도 취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종교개혁의 교훈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다시 형성하다, 새롭게 만들다, 되살리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레포르모(reformo)에서 나온 말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더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죽어 버린 것을 되살려냈다. 그들은 교회를 구체화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틀을 얻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초대 교부들 뿐 아니라 성경과 사도 시대까지 되돌아봤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라는 격언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개혁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을 수없이 했다. "교회의 참된 보화는 복음이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교회의 참된 보화를 은폐하고 성경에 없는 가르침과 관행을 겹겹이 쌓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교회 생활과 관행과 교리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종교개혁 신학의 5대 강령을 만들어 냈다.

▶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성경만이 생활과 경건의 모든 문제에 있어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다.

▶ **솔라 그라티아(오직 은혜)와 솔라 피데(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임한다.

▶ **솔루스 크리스투스(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다른 중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 **솔리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GNPNEWS]

는 사람들, 기존교회의 권위에 대치되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종교개혁과 마틴 루터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 앞에 95개의 반박문이 걸렸다. 면죄부를 팔고,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황교회에 대해 청년 마틴 루터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며 교회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그가 내건 반박문은 당시 교회제도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중 50조는 매우 직설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교황이 면죄부를 퍼뜨리는 자들의 강제 징수 행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성베드로 성당을 양떼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건축하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 다음 조항에는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내는 면죄부 판매자들"에 대해 언급하며 신학적으로도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제62조에서 그는 "교회의 참된 보화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1517년부터 1521년까지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 신학의 5대 강령을 만들어냈다.

루터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매우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이



▶ 면죄부(중세에 로마 가톨릭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하던 증서)를 판매하는 모습.

<4면에 계속>



선교 통신

“박해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필수요건이에요”

중동 출신 여성 기독교인의 간증

최근 박해받는 중동에 살던 한 크리스천 여성 메리암(가명)이 미국인 목사 6명과 여러 명의 사역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새 삶을 누리게 됐다.

그녀는 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가즈덴에 있는 매도우브룩침례교회의 요청으로 자신의 간증을 나눴다.

기독교인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한 무슬림 남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당해 경찰에 항의하다가 6개월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게 주인이었던 무슬림 남성은 “당신과 딸들에게 산(酸)을 뿌리겠다.”고 아버지를 협박했고 메리암에게 “너와 네 동생을 고아로 만들어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국은 도리어 그의 아버지를 먼 곳으로 보냈다. 또한 가게 주인 무슬림 남성은 메리암의 아버지가 자신을 칼로 베려했다고 주장해 경찰은 오히려 가게 주인

에게 메리암의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말했다.

박해와 학대는 일상

메리암은 박해와 학대는 중동 크리스천들에게 매일의 투쟁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미국으로 오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에 있었던 일도 나누었다.

“거리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3명의 남자들이 따라왔다. 그들은 갑자기 내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었다. 그들은 작은 돌을 집어 나를 향해 던졌으며 ‘네 머리를 가려!’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녀는 서양의 크리스천들에게 박해는 겪고 싶지 않은 나쁜 일로 보이지만, 많은 중동 크리스천들에게 박해란 극심한 기독교 박해국에 속한 교회가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하나의 필수요건이라

고 말했다.

메리암은 “일부 과격한 무슬림들이 소위 비신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박해하며 알라의 이름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지만, 중동의 많은 다른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눈을 떠서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많은 무슬림들은 오늘날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알라라는 이름의 신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을 살육하라고 명령하는 이는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제발, 당신의 코란을 펼쳐서 그런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리암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슬림 배경을 가진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나는 지난 5년간 혼자 힘으로 6000명이 넘는 무



▶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출처: 뉴스시스 사진캡처)

슬림을 회심케 했던 한 성직자를 알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

그녀는 “우리는 박해가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느끼고 있다.”며 “하나님은 지금 중동에서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 심지어 이런 미친 듯한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매도우브룩침례교회의 담임 랜디 건터 목사는 지난 4월 메리암이 사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말을 크리스천포스트에 전했다. “박해가 멈추기를 기도하지 말라.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방향의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5년 동안 겪도록 허락하신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GNPNEWS]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기획

(3면에 이어)

마틴 루터, 로마 계단에서 비텐베르크 정문까지

22살의 촉망받는 법학도였던 마틴 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공포와 같은 원초적인 고민을 가진 청년이었다. 당시 루터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루터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토테른하임(Stotternheim) 들판에서 쏟아지는 폭우와 천둥번개를 만나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한다.

그는 그 폭풍을 하나님이 자기 영혼 위에 내리시는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 바닥에 엎드려 주님이 아닌 수호성인의 이름을 불렀다. “성 안나(Saint Anne)여, 나를 도우소서. 살려만 주신다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는 서원대로 수도사가 되었지만 그의 고뇌는 사라지지 않았다.

수도원장은 루터가 자신의 고뇌를 이겨 낼 수단 있다면 교회에 큰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재목감으로 봤다. 수도원장은 루터가 교황청을 방문하면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날 것을 지시했다. 루터는 그러나 로마에서 온갖 위선과 걸치레



▶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와 궤변이 난무하는 추악한 모습을 발견했다. 로마 순례는 그에게 교회에 대해 더욱 큰 환멸감을 안겨 줬다. 그러자 수도원장은 루터를 다른 곳에 보내 신학 공부를 하게 했다. 왜냐하면 루터가 공부하기에 바빠 고질적인 자기 점검을 할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처방도 루터의 병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루터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신학 강의를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을 읽고 다시 바울의 글을 읽게 되었다. 바울은 불의한 자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견하지 못하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 강해 수업을 맡으며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그렇게도 갈

급하며 찾던 ‘하나님의 공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만연한 문제점을 지적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대학 정문에 내 걸었다.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루터에 대한 영향력을 잠재우기 위해 로마 가톨릭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독일 분회에서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하이델베르크 논쟁에서 루터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십자가 신학’을 발표한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당시 로마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루터는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더 어리석고 공격적이다. 십자가는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 그러므로 참된 신학자는 가시적이고 분명한 것들로부터 논하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 숨어계시는 방식인 십자가로부터 배우는 자”라고 주장한다. [GNPNEWS]

선교 통신

예수를 만난 친척을 말리다 그리스도인이 된 ‘무사’

최근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집들이 불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콕교회 사제가 죽음을 당했으며 할머니가 옷이 벗겨진 채 거리를 걸어야 하는 수모를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무사(가명)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사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집안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신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청년의 열정으로 한창 열심이 특별하던 때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빠져서는 안 될 예수 믿는 일에 빠진 것입니다.

무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친척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매일 그를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 중에는 그를 협박하고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를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그를 빼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갈 때 무사는 어떤 말을 해 줄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많



▶ 불탄 폐허 속에서 예배하는 이집트 콕교회의 모습(출처: raymondibrahim 캡처)

은 시간에 걸쳐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남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에게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에 신뢰가 갔고,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척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날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사도 그가 믿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무사에게는 핍박과 고난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고 1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그 고난의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사는 늘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GNPNEWS]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땅 끝에서 순종하는 박바나바, 심실라 선교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5년 반 동안 무슬림권에서 사역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온 박바나바, 심실라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안식이 느껴졌다.

- 선교사의 발걸음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박바나바(이하 박): “복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죠. 저는 경남 함천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골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년 정도가 지나자 점점 제 안에 여러 한계들을 보게 되었죠. 목회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고 싶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저를 점점 더 막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일주일간의 어떤 신앙 훈련과정이 있다며 함께 갈 것을 제안하셨어요. 엄청난 갑갑함 이라기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기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심실라(이하 심): “그 훈련에 다녀온 뒤 남편의 설교와 사역이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중 어느 해 여름 무렵, 시골 구석에 있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갑작스럽게 아웃리치팀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팀이 남편이 훈련을 받았던 바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팀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 때문에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훈련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 그 훈련과정을 마치고 바로 선교사로 헌신하셨나요?

박: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다녀온 후에도, 전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 후 그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그곳에 참여하면서도 한 번도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저는 ‘보내는 선교사’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대구에서 진행된 그 선교훈련을 마치고 집까지 오는 길에 아내가 ‘하나님께서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열방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라고 물었는데 저는 ‘아니’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런 기간을 한 1년 반 정도 보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였죠.”

심: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님이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살라고 하시지, 선교사로 살라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복음 앞에 서면서 주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런 남편의 결정을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받게 되었죠.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복음이 저를 변화시킨 부분 중의 하나였어요.”

- 선교사가 되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으셨군요.

박: “선교라는 주제를 그렇게 계속 대하면서 다른 것보다 제게 두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슬림권에 대한 두려움, 선교사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자꾸 다가오니까 피하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건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했죠. 그렇게 여러 시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동안 결국 주님이 기도 안에서 제 마음을 확정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하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심: “저는 그 기간에 남편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당시 남편은 선교훈련에서 아웃리치팀의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팀모임을 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쁨을 맛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어린아이들과도 계속 말씀으로 기도를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떠나다

- 선교할 나라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나요?

박: “이후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속해 있었던 교단 선교단체에서 다시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아직 파송교회나 사역할 나라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교단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동유럽 국가로 파송해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두고 한 2주간 말씀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심: “사실 선교지를 결정할 때 저희에게 주셨던 나름대로 기준은 선교사가 없는 지역과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저희는 1년 정도 선교지를 구하는 중이었고, 너무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남편이 정말 말씀으로 확정될 때만 움직이려



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지금의 파송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복음화율이 낮은 10개국에 파송할 선교사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10개국 중 한 국가였던 M국으로 정탐을 가게 되었는데 현지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 전 해에 외국선교사님이 한 분이 피살당하는 사건도 있는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저희에게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돌아와서는 더욱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죠.”

- 선교지로 떠나시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박: “아무래도 저희가 사역하고 있던 시골교회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이제 막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죠. 만일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면 성도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저희를 축복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결국 후임 목사님을 주님이 허락해주셨고, 자연스럽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어요. 재정적인 부분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배웠던 믿음재정이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의 원칙이 되었어요. 믿음재정이라는 것은 재정의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오직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많이 부족했지만 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후원이 연결될 때도 있지만 모두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받고 있어요.”

- 자녀가 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잘 받아들였나요?

심: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섬겨주셨던 한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이 집에서 언어를 조금씩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4학년, 딸이 2학년을 마칠 무렵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2주 정도 뒤에 프랑스어로 수

업하는 현지학교로 바로 가게 되었죠. 언어가 안되니까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학교 상황이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박: “당시에 저희는 개척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고, 한 선교사님의 리더십 아래로 가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것이 그 선교사님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저희가 거쳐하는 집이나,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학교를 다닐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곧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모든 것을 따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어떤 선택보다 잘 한 것 같아요.”

선교사로 준비되는 자녀를 보며 감사

심: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여전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부부를 부르신 게 아니고, 아이들이 부르신 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저희보다 언어를 훨씬 빨리 배우고 선교사로서의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 나이에 열방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닌 감사한 마음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이들의 마음에도 점차 주님이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박: “전임 선교사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체육관 사역을 받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중에 다른 선교사

님들이 와서도 이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임 선교사님으로부터 체육을 잘 배웠던 현지인과 저희 아들과 함께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심: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된 그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의 모습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도구삼아 사회인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혀 계획에 없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체육관에 아이들이 점점 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으려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서 벌써 4년 반째 이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지요.”

- 그 아이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으셨나요?

박: “아이들과 직접 복음을 나누는 것은 현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제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죠. 개인적인 교제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 한 분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에 그 분이 저희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심: “그분이 작년 여름에 손에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서 깁스를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깁스를 했던 부위가 고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른팔을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가난해졌죠. 한번은 그를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한두 달 후에 당신들이 그때 기도 해주었던 세 가지 일이 다 응답되었다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확인되면서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올해 1월에 세례를 받았어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의 빛을 발하라(8.끝)

믿음의 사람아, 여지를 남기지 말라!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 본 적이 있는가? 복음이 숨을 쉬게 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여겨지고 있느냐는 질문이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신학적인 논쟁만 일삼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게 낫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어져 기도해야 한다. ‘나 안 믿어 집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불쌍한 나를 좀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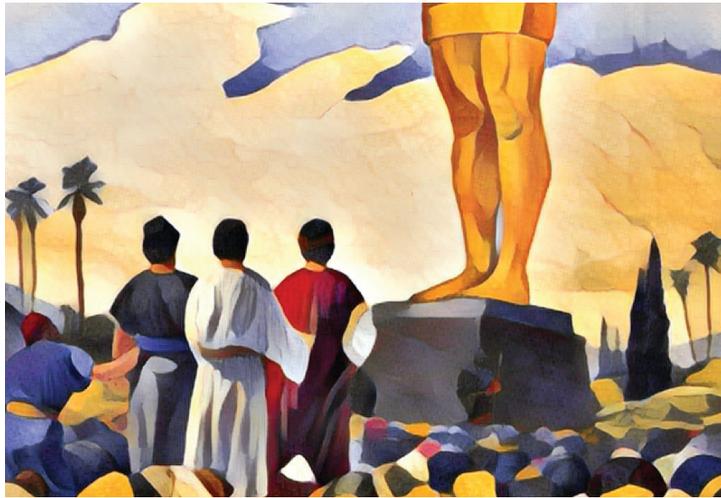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하게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외롭고 흑독하게 내려진 네 명의 젊은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고아처럼 외로웠다.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같은 편에 서주지 않았다.

이 시대에도 캠퍼스 복판에, 직장 한가운데에 외롭게 던져진 자들이 있다. 복음대로 살겠다고 다짐해보지만 말이 안 통한다. 하지만 그

럴수록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크신 하나님은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닌, 적진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운행하셨다는 사실을.

주님은 역사의 주역이 될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다니엘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신앙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유대인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 무모한 짓의 대가는 원래대로라면 죽음이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어도 여한이 없었다. 죽고자 했기 때문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지경이 된 자신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 신앙에 절하지 않겠노라 고백했다. 다니엘



의 믿음과 세 친구는 죽기를 각오했던 것이다.

죽기를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 통해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바로 그때 주님이 개입하셨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단 1:8-9)

이처럼 다 망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또한 19세기 사약했던 미국의 대학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했던 작은 청년들을 통해 건초더미 같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이렇게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이들을 통해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다.

복음 앞에 선 이후,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고자 태도를 분명히 하고, 마음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는가? 계속 그 길을 걷고 있는가? 혹 뜻을 정하고도 여지를 둔 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아예 잡아 놓고,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앞으로 믿음으로만 산다는 말에는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

마음에 여전히 다 결론내리지 못한 여지가 혹시 있는지 살펴보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더럽혀지지 않은 단심(丹心)으로 십자가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구하자.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끝> [GNPNEWS]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다림줄 (15) | 유신진화론 vs 창조론 (11.끝)

진화론보다 더 위험한 유신진화론



최근 진화론을 수용하며 그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시도하는 유신진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유신진화론적 시각에서 집필된 우종학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의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이하 ‘무크따’, IVP刊)에 대해 창조과학 전문가인 이재만 교수(창조과학선교회)가 반론을 제기했다. 본지는 이재만 교수의 글을 요약, 연재한다. <편집자>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는 죄

오늘날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모두 진화론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른다.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

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면서 진화 역사를 추가한 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과학자나 신학자의 핑계를 대고 성경 역사를 바꾸어도 거짓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잠 30:6)

이번 ‘무크따’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많은 것을 더했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런 면에서 유신진화론이나 그와 유사하게 성경을 진화론에 맞추려는 타협이론들은 진화론보다 훨씬 위험하다. 진화론은 ‘교회 밖에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유신진화론은 ‘교회 안에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무지한 직설적 방법으로

크리스천을 시험하지 않는다. 만약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당장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지 않는 성경 기록을 역사적 실재가 아닌 신화로 만들어 놓은 다음, 이것들을 복음과 상관없는 성경 속 주변 이야기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인류 역사 이래로 사탄의 유혹이 멈추었던 적은 단 1초도 없다. 여기에는 교회도, 과학자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 자신이 만들어 낸 진짜 역사를 숨기는 것이며, 그 사실이 기록된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다.

‘무크따’를 계기로 유신진화론이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약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국교회가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막 8:38)

[GNPNEWS]

<5면에 이어>

Interview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해답이더군요”

- 놀라운 일이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심: “다른 것보다 현장의 선교 사남들과 연합케 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도 1주일에 한 번씩 대역서 가정 모임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장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선교사가 이런 모임들을 주도해서 진행한다는 것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선교사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보안상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기도가 은혜 중에 계속 되고 있어요.”

박: “지금은 요셉의창고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지난 4월에 파송된 한 가정과 저희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어요. 때론 바쁘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었던 가정예배나 기도의 자리가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에게도 너무 유익하

고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그분들이 기도 모임을 계속 하고 계시죠. 연합의 힘인 것 같아요.”

- 혹시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박: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늘 제가 묻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정직한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해답이더군요.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앞에 서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요.”

심: “하나님이 저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전부를 받으시는 것이 너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여지가 많았던 저의 삶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더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제 영혼을 죽이는 거였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헌신만큼 복된 일은 없으니까요.”

[GNPNEWS]

J.D.





“선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지난 6개월은 한 선교단체의 선교 훈련을 통해 선교에 대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 복음에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이고, 그 삶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이라며 뒤로 미루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떤 특정한 나라에 가는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 한 사람이 진정 복음을 만나는 것. 나의 죄 된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십자가 복음에 감추어진 보화를 만나 변화된 생명으로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죄의 반역성,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버린 죄의 심각성이 매 순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심각한 죄의 결과는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매달리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며, 다른 지체와 연합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대면할 때마다 주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 옛사람의 죽음에 매 순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리 녹

'나는 왜 나를 옳다고 말하기 위해 상대방을 정죄해야만 하는가?

도대체 언제쯤이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좌절들이 나를 절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죄 된 존재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해 또 다른 선한 자아를 추구하거나, 아예 삶을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과 좌절은 오히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한 하나님의 안전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진짜 죽음 같은 절망에 이르러서야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먼저 저를 선교하셨습니다. 나의 죄 된 실체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선교였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뿐이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나의 모습에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져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과 말뿐 아니라 나의 절박함

과 간절함이 더해진 기도는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분만을 구할수록 내 안에 주님과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커집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못하는 것은 실패가 되었지만, 복음이 모든 것을 주님 편에서의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중요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떨시하며 떠나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라 나를 선교적 존재로 부르신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더 달려 나가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GNPNEWS]

임창환 전도사(사도교회)



“거리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번 외치니 멈추기가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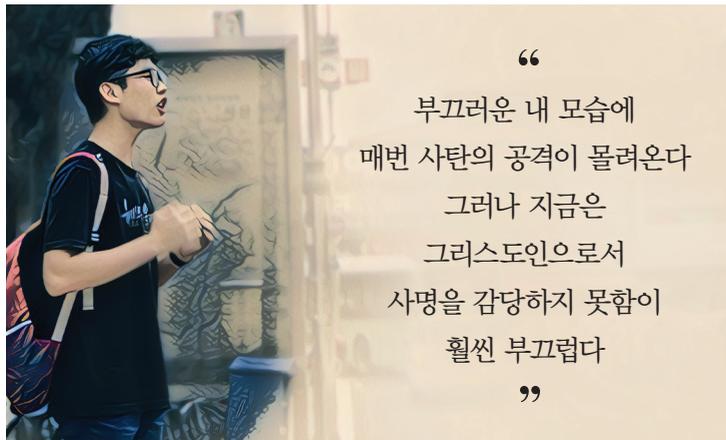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겠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다. 하지만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부끄러움은 바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너무 부끄러웠다. 그래서 쭈뼛쭈뼛 신문이나 전도지를 돌리며,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짜증내거나, 전도지를 받긴 해도 곧 구겨버렸다. 읽어보지도 않는 것이다. 절망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무렵, 우리는 '길 위의 전도자'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선생님 한 분께서 실제 그 내용으로 터미널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3-14)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도 듣는 것 같았다. 그 모습에 나도 담대함을 얻어 학교 지체들과 함께 사람들이 많은 터미널 앞에 섰다. 어쩌나 떨리던지,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말이 헛나가지 않을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는 않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눈을 감고 입을 뻗었다. “여러분!” 한번 입을 떼니까, 또 멈추는 게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다 끝나고 지체들이 말해주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주님도 나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다.



“ 부끄러운 내 모습에 매번 사탄의 공격이 몰려온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이 훨씬 부끄럽다 ”

도대체 나를 통해 몇 명이나 주님께 돌아왔나? 솔직히 단 한 명도 없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는데, 바깥에서는 아니었다. 이것이 나의 수치였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다음세대 선교사로 부르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전도수업을 통해 거리로 나아가게 하셨다. 우리학교는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텐 지 벌써 30여 차례가 되었다. 때로는 일대일로 만나 전도하고 짧게 나에게 실제 된 복음을 나눈다. 매번 사탄의 공격이 몰려온다. 내 모습도 부끄러운데 전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주님은 되물어 오신다. “네가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럽지 않니?” 지금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부끄럽다.

음료수를 주시는 분, 밥 한 끼 사주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 물론 지금까지 한 명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을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 영광의 그날에 주님이 그들을 보게 하시리라 믿으며 또 그렇게 기도한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주님은 순종하는 나에게 “너는 왕의 명령을 대언하는 대언자다!”라고 격려해주시다. 무엇보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GNPNEWS] 최범식(20)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조선에 온 로버트 하디 선교사.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자 그 원인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죄임을 깨닫게 하셨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하디의 회개에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일으켰다. [GNPNEWS]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다윗>

믿음을 되살리는 '이스라엘의 등불'



작품설명: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다윗>, 1501-1504, 대리석, 피렌체 갤러리 델 아카데미아

5.17m의 이 거대한 대리석 조각 <다윗>은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자 르네상스의 대표작이 되었다. 피렌체 공화국이 세워질 당시 메디치 가문은 미켈란젤로에게 “자유, 저항, 독립”의 피렌체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의뢰하였다. 미켈란젤로는 이 과업을 위해 성경 속 인물 중 다윗을 선택했는데, 피렌체 공화국의 정신과 신생 공화국의 젊음과 순수함을 두루 보여줄 수 있는 인물로 다윗이 적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미켈란젤로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수많은 행적 중에서도 블레셋의 거인족 용사 골리앗과의 전투를 선택하였다. 때문에 <다윗> 조각은 오른 손엔 물맷돌을, 왼손엔 물맷돌을 돌리기 위한 천을 들고 있으며, 다윗의 눈은 날카롭고 예리하게 골리앗을 쏘아보고 있다. 눈의 방향은 거대 도시로 마를 향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골리앗과 대치하는 절명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미켈란젤로 외에 많은 조각가들은 대부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의 모습이나,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조각하였으나, 미켈란젤로의 선택은 달랐다. 다른 조각들에는 다윗의 용맹함과, 그가 거둔 승리의 기쁨은 표현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핵심을 비껴간 것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힘이나 조정력, 민첩성, 전략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믿음이었다. 승산 없어 보이는 이 전투에서 돌맹이 하나만 달랑 들고 당당하게 적장을 쏘아보고 있는 <다윗>상의 긴장감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대 믿음이 표현될 수 있었다.

훗날 다윗은 아비새와 같이 후대에 '이스라엘의 등불'로 불렸다. 즉 존재만으로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되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보는 것만으로도 피렌체의 정신을 일깨우는 피렌체의 상징이 된 것처럼. [GNPNEWS]

이상윤(미술 평론가)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해도...

선교사로 헌신 후, 주님은 최근 1년 동안 다음세대를 섬기는 기회를 허락해주셨다.

“말도 잘 듣지 않고 제멋대로인 다음세대,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음으로 정말 가능할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중에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으로 주님은 내게 알아듣도록 말씀해주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다. 주님은 얼굴이 수건에 쌓인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구동성으로 소망 없다고 말하는 다음세대를 하나님이 살리실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됐다.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진실로 기쁨이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음세대 가운데 뛰어들어 순종하게 하셨다.

다른 곳을 더듬어 찾을 필요 없이 딱 나를 보면 다음세대가 보였고 다음세대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한 부류는 제멋대로 천방지축 통제 불능이었고, 또 한 부류는 얌전하고 아무 문제를 일으

키지 않으며 조용히 순종하는 듯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아이들의 실체가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정, 평판,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부정, 정욕, 탐욕, 우상숭배, 쾌락, 자기사랑, 자아추구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물든 다음세대를 직면해야 했다. 나와 꼭 닮아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보면 다음세대가 보인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 나와 같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떠올랐다. 죄 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 ‘완전한 사랑’ 나에게도, 다음세대에게도 이 사랑이면 너무나 충분했다.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지 아이들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됐다. 그리고 다음세대를 통해 드러날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됐다.

한번은 8세부터 14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과정을 섬길 때였다. “선생님, 저 배와 머리가 너무 아파요.”라며 한 아이가 양호실로 계속 찾아왔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배를 만져주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와 통화하게 해주세요.”하며 속내를 비쳤다.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아이를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를 진정시킨 후 왜 우리가 엄마와 떨어져서 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 왜 지금은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통해 어떤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말해주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니?”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밖에 나가고 싶어요.”라고 대답했다. 덜컥 아이의 손을 잡고는 밖을 향해 뛰뚱뚱 걸어나갔다. 우리는 교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난 아이에게 속삭이듯 말해주었다. “네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은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 알고 있니?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셨어. 주님을 기대하지! 주님을 사랑하자!” 아이는 알아듣는 듯 큰 눈을 깜박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이는 복음에 온전히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저 함께 하는 것이었다.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 위로와 힘이 된 것처럼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이 된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하다. 다음세대와 모든 열방이 예수님으로 안식하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순종할 것이다. [GNPNEWS]

이경희 선교사

구독신청 안내

아래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6. 8. 19 ~ 9. 8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주선 권혜령 김경선 김기형 김득기 김관숙 김민성 김영민 김유남 김은영 김정대 남영신 박승자 박재숙 신유정 안은경 오경숙 오성애 우 석 원종란 유자인 유진환 이란영 이복길 이 순 이준진 이지수 이현희 임찬연 정영숙 정예하 조경미 조명숙 조형광 차인순 최근희 최은정 표순호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감단교회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전원교회 김화제일교회 높은뜻하늘교회 동명교회 목자교회 복음기도동행사무국 산돌교회 세순교회 서경산업 순회선교단 다음세대팀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예순한의원 은혜선일교회 전주은누리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